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글로벌 스마트 가전 생산 거점 된다

프리미엄 스마트 제품 중심으로 확대·재편…내달부터 건조기 최대 40만대 신규 생산

삼성전자가 호남권을 ‘글로벌 스마트 가전 생산 거점’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당장 다음달부터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에서 건조기 제품을 신규로 생산한다.

이처럼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계열사들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60조원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광주사업장이 소재한 광주지역 경제계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16일 삼성전자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등 삼성 계열사들은 호남지역을 비롯해 충청·경상 등 지역에 향후 10년간 60조1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반도체 패키지와 최첨단 디스플레이, 차세대 배터리, 첨단 MLCC, 전기부품 소재 등 제조업 핵심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각 지역별로 특화 사업을 지정해 투자를 집행할 계획으로, 각 지역이 해당 분야에서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투자는 지역 풀뿌리 기업과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지역 산업을 적극 육성해 지역 균형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삼성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전국의 비수

도권 계열사 사업장을 중심으로 60조1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이는 올해 정부 예산(638조 원)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그 중에서도 호남지역은 프리미엄 가전을 생산하고 있는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을 주축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

삼성전자는 호남권을 스마트 가전 제품 중심 지역으로 육성해 생산량을 계속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현재 광주사업장에서 생산 중인 가전제품을 프리미엄 스마트 제품 중심으로 확대·재편해 ‘글로벌 스마트 가전 생산 거점’으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우선 삼성전자는 광주사업장에서 신규 생산 품목으로 건조기를 생산기로 했다. 오는 4월부터 연간 25만대에서 40만대 생산을 목표로 건조기 제품을 만들어내기로 했다.

실제 삼성전자가 광주사업장에 건조기를 신규 생산기로 하면서 지역 협력사에서는 금형과 관련 자재 생산을 위한 시설투자과 인력채용 등이 이뤄지면서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광주사업장에서는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등 프리미엄 가전과 가전제품에 들어갈 핵심부

품, 모터 등을 생산 중이다. 여기에 건조기를 신규로 생산하게 되면 추가 인력 채용을 비롯해 협력사의 납품물량 확대 등 지역경제 성장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삼성전자는 광주사업장에서 생산하는 가전제품용 모터 생산을 2025년까지 현재의 2배 이상 확대해 키워나갈 예정이다.

모든 가전제품에는 모터가 필수적으로 사용되는데, 차세대 모터라인을 광주에서 집중 육성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광주과학기술원과 모터 관련 핵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자사의 제조 경쟁력을 바탕으로 광주사업장의 프리미엄, 스마트 가전을 육성해 지역 협력사의 발전도 꾀한다는 구상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투자 이외에도 지역 기업의 자금, 기술, 인력 등을 지원·육성해 회사와 지역경제가 더불어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상생 모델’을 구현해 나가겠다”며 “광주를 스마트 가전 중심 생산기지로 키워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삼성전자가 호남권을 ‘글로벌 스마트 가전 생산 거점’으로 육성해 신규 제품을 생산하고 생산량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지역경제계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에서 직원이 에어컨을 생산하고 있는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효성티앤씨, 협력사 글로벌 경쟁력 강화 돕는다

ESG 교육·컨설팅…친환경 인증 비용 지원 등 추진
조현준 회장 “글로벌 친환경 섬유 트렌드 선도할 것”

조현준 효성 회장이 국내 섬유업계 중소 협력사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ESG경영 역량 강화에 직접 나선다.

효성티앤씨는 16일 협력사들의 ESG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과 친환경 인증 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내년부터 EU 등 전세계적으로 시행되는 ‘공급망 실사법’ 등으로 협력사의 ESG경영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협력사들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급망 실사법은 대상 기업의 전 공급망에 걸친 환경, 노동, 인권, 지배구조 등 ESG요인에 대한 정기적 실사를 의무화하고, 실사 과정에서 발견된 협력업체의 근로자 인권·환경 오염 등 문제 발견 시 공시 및 시정해야 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효성티앤씨는 ESG 전문 컨설팅 업체와 함께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4회에 걸쳐 11개 협

력사를 대상으로 임직원 ESG 교육과 ESG 진단 및 가이드, 개선킨 컨설팅을 제공한다.

효성티앤씨는 협력사의 ESG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ESG 규제 환경에 적극 대처하기 힘든 중소 협력사의 지속가능경영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효성티앤씨는 국내 섬유업계 최초로 중소 협력사들의 친환경 인증 발급도 지원한다. 글로벌 친환경 인증 획득이 ESG 규제 대응 등 협력사들의 ESG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효성티앤씨의 대표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섬유 ‘리젠’과 옥수수 추출물로 만든 세계 최초의 바이오 섬유인 ‘크레오라 바이오베이스드’로 원단을 제작하는 21개 중소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GRS와 SGS 에코 프로젝트 마크 인증을 위한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현준 회장

에코 프로젝트 마크는 친환경 원재료를 사용하고 인체에 무해하며, ESG경영을 통한 친환경적 방식으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인증이다.

효성티앤씨가 2008년 국내 최초로 개발한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섬유 ‘리젠’은 2009년 세계 최초로 글로벌 리사이클 표준 인증인 GRS를 획득했다.

‘크레오라 바이오베이스드’는 지난해 6월 스위스 제네바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검사, 검증, 테스트 및 인증 기관인 SGS로부터 ‘에코 프로젝트 마크’를 획득했다.

조현준 회장은 “ESG는 현재와 미래를 포괄하는 기업의 가치 기준이되고 있다”며 “효성을 비롯한 협력사들의 ESG경영 강화를 통해 글로벌 친환경 섬유 트렌드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국제 유가, 미 은행위기에 급락

16개월만에 70달러 붕괴…금값은 6주만에 최고가

국제 유가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발(發) 위기의 유럽 확산 우려에 급락했다.

15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4월 인도분 서부 텍스사산 원유(WTI)는 배럴당 5.2%(3.72달러) 떨어진 67.6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2021년 12월3일 이후 최저가로 1년 4개월여 만에 배럴당 70달러 선을 내렸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의 5월물 브렌트유도 5% 가까이 급락해 배럴당 73달러대로 밀려났다.

SVB와 시그니처은행 등 미국 중소 은행들의 잇단 도산 사태 직후 유럽 대형 은행인 크레디트스위스 위기설까지 번진 것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최대 주주인 사우디 국립은행이 크레디트스위

스에 추가 재정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 불안 심리를 증폭했다.

글로벌 금융권 위기 가능성이 재점화하면서 경기침체로 원유 수요가 둔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유가를 끌어내린 셈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이날 글로벌 원유 재고가 지난 1월 5290만배럴 증가했다고 보고, 공급에 비해 수요가 덜 회복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반면 안전 자산인 금값은 상승세를 타고 있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금은 온스당 1.1%(20.40달러) 오른 1931.30달러에 장을 마감, 지난달 1일 이후 6주 만에 최고가를 찍었다.

/연합뉴스

중기 이자 부담 완화…이차보전 사업 접수

중기부 20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이차 부담을 완화해 주는 이차보전 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자보전 사업은 시중은행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의 대출이자 일부를 정부가 보전에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자 올해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최근 3년 내 시설을 도입한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이나 스마트공장 도입, 그린기술 영위, 수출 실적 10만달러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다.

휴·폐업, 세금 체납, 우량기업 등 중소기업 정책 자금 융자 제한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업당 연간 5억원 이내의 운전자금에 대해 3

년 거치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자금을 공급해 8000억원 규모의 은행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자보전율은 혁신성장 분야, 그린 분야, 뿌리산업, 지역특화산업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점 지원 분야 기업에는 3%포인트, 그 외 기업은 2%포인트가 적용된다.

이자보전율이 대출금리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차보전율을 대출 금리 수준으로 조정한다.

중진공은 이차보전 사업 추진을 위해 13개 은행과 협약을 체결했다. 개별 기업은 협약은행과 대출 상환 후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협약 체결 은행은 광주은행을 비롯해 경남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등이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소상공인 10명 중 9명 “대출이자 부담 힘들어”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이 대출 이자 부담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9~14일 소상공인 14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금융실태조사 결과 현재 대출 이자에 대해 힘든 수준이라는 응답이 89.7%에 달했다. 이 중에서 매우 힘든 수준이라는 응답도 55.0%로 절반이 넘었다.

1년 전 대비 부채액에 대해서는 63.4%가 늘었다고 답했고 그 이유로 매출과 수익 동반 하락이 41.0%로 가장 많이 꼽혔고 이어 매출 하락(37.0%), 비용 상승에 따른 수익 하락(16.0%) 등 순이었다.

지난해 영업손익에 대해서는 적자라는 응답이 36.2%였다. 월평균 영업이익이 1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도 13.8%에 달했다. 적자이거나 월 100만원 수익도 못 올리는 소상공인이 절반인 셈이다.

사업자금 조달 목적으로 대출받은 경험이 있나

는 질문에는 88.6%가 그렇다고 답했고 현재 대출 잔액 유무에 대해서는 97.4%가 있다고 답했다.

부채액은 5000만~1억원이 27.6%로 가장 많고 이어 3000만~5000만원(22.5%), 3000만원 미만(15.8%), 2억원 이상(15.0%) 등 순이었다.

대출 금리는 제1금융권에서는 5%대라는 응답이 20.8%로 가장 많고 제2금융권에서는 10% 미만인 52.7%로 절반 이상이었다. 제3금융권에서는 15~20%가 38.5%로 가장 많았다.

대출 관련 가장 큰 애로사항은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가 39.8%로 가장 많고 대출한도 제한에 따른 추가 대출 불가(36.2%), 복잡한 대출 절차 및 구비서류(11.2%)를 꼽았다.

정부의 금융정책 중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는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대출 시행이 47.8%로 가장 많이 꼽혔다.

/연합뉴스



광주은행 봄 맞이 캐릭터존 새단장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 본점 1층 ‘캐릭터 존’이 새단장을 마쳤다. 캐릭터 존은 광주은행 캐릭터 ‘웅이·달아·단지’ 대형인형이 전시된 공간이다. 올 봄 콘셉트는 ‘꽃밭에서’로 캐릭터 주위에 화사한 봄 꽃을 장식했다. <광주은행 제공>

다음주부터 중도금 대출 한도 사라진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377.91(-1.81)	
↑ 코스닥	781.98(+0.810)	
↓ 금리(국고채 3년)	3.400(-0.073)	
↑ 환율(USD)	1313.00(+9.30)	

다음 주부터 분양가와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당 최고 5억원으로 제한됐던 중도금 대출 한도도 사라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중도금대출분양가 상한 기준과 인당 중도금대출보증한도 규정을 폐지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된 사항은 오는 20일부터 적용된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2023년도 업무계

획’을 통해 HUG 중도금대출보증분양가 상한 기준을 폐지하기로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예초 정부는 분양가 9억원 이하만 중도금대출을 허용했으나 작년 11월 12억원 이하로 완화했고 이번엔 이를 아예 없앴다.

다음 주부터 대출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분양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중도금대출이 허용될 예정이다. 또 현재 5억원으로 정해진 인당 중도금대출보증한도도 폐지된다. 이를 통해 수요자들의 중도금 조달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